



↑ 치즈 케이크와 같이 심플한 케이크에 잘 어울리는 화려한 꽃무늬 접시. 포르투갈산으로 색상은 오렌지와 노랑 두가지. 가격은 크기에 따라 9천원과 만3천원. <전망좋은 방>

↓ 피자를 이런 접시에 담아보면 어떨까? 유럽풍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과 글자로 장식된 두툼한 사기그릇. 2가지 크기로 가격은 개당 7천원과 만3천원. <유엘패밀리>



## 유행에 민감한 접시로 개성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빵맛을 더해주는 예쁜접시 컬렉션

요즘 백화점 뿐 아니라 동네 소품가게에서도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접시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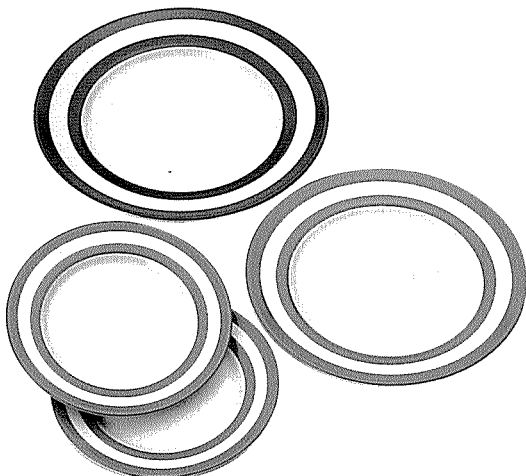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예쁘다고 마구 사모으면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기 일쑤.

또한 한꺼번에 모든 접시를 바꾸려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때 그때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접시들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.

이번호에 처음 소개되는 소품모음 코너에서는 케이크와 쿠키제품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센스 만점의 접시들로 꾸며보았다.

■ 구성 · 진행 · 박현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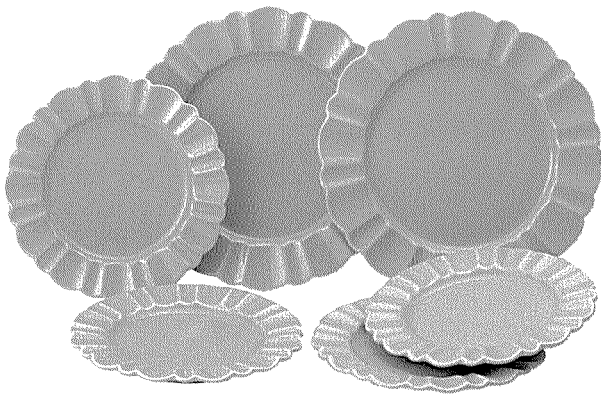
↓ 두줄의 테두리가 있어 정갈해 보이는 둥근 접시. 피스케이크에 생크림 또는 소스로 장식해도 잘 어울린다. 녹색과 파랑 두가지 색상으로 작은 것은 만원, 중간 크기는 만3천5백원. <유엘패밀리>



↑ 샌드위치를 담아내기엔 적당한 사각접시. 가벼운 멜라민 소재와 다양한 도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. 이태리산으로 가격은 만2천원. <유엘패밀리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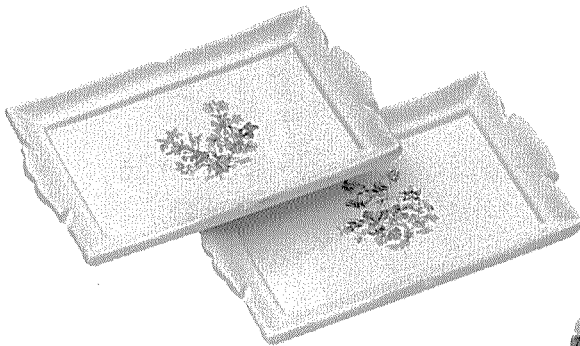


↑ 접시인가 정반인가? 마치 오래 사용하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나무 소재의 타원형 접시. 빨강, 연두, 노랑 세가지 색상. 이탈리아산으로 가격은 개당 2만8천원. <전망좋은 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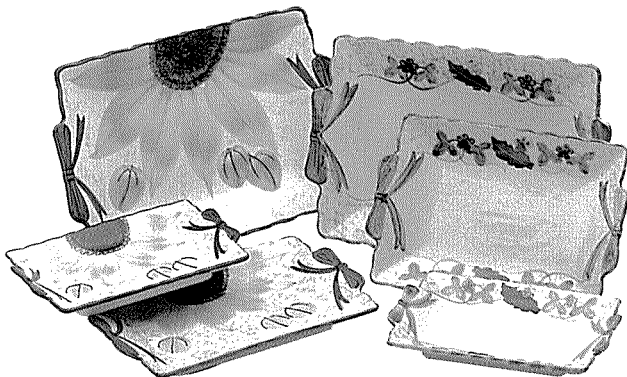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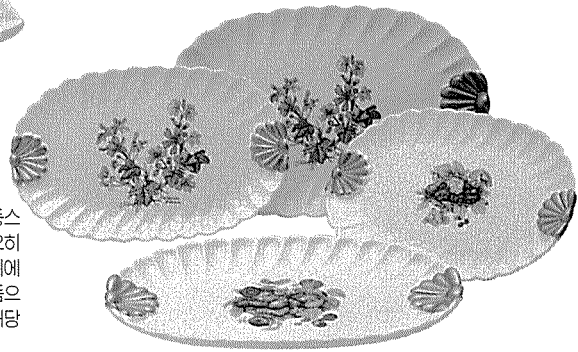


↑ 오렌지, 연두의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. 쇼트 케이크 또는 타르트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사기그릇. 가격은 개당 9천원에서 만3천원. <전망좋은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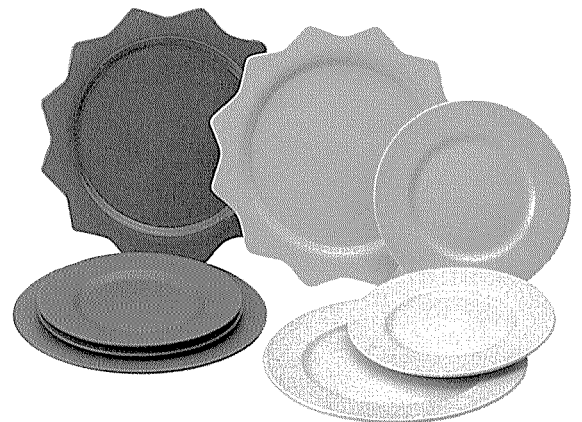
↓ 37지 파스텔톤의 꽃모양 접시.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이며 특히 볼이 깊은 오목한 접시는 초코 쿠키 등을 담아내기엔 알맞다. 가격은 만2천원에서 만8천원선. <베스하우스>



↑ 나무와 플라스틱을 합성한 STP라는 소재로 만든 고품스런 접시. 자세히 보면 균열이 가있는 것 같은 무늬가 오히려 자연스럽다. 생크림을 듬뿍바른 소형 케이크를 담기에 안성맞춤으로 타원형과 네모 두가지 모양. 이태리 수입품으로 가격은 2개 한세트 타원형은 만7천원, 네모접시는 개당 8천원. <대하>



↑ 둥근 모양에 식상한 개성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네모난 국산사기접시. 독특한 붓터치의 무늬들은 모두 핸드 페인팅한 것. 크기는 대·중·소 3가지로 가격은 개당 3천원, 5천원, 5천5백원. <사랑방>



↑ 노랑과 파랑의 깔끔한 무광접시와 색다른 디자인의 꽃모양접시. 플라스틱이라 착각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사기그릇. 포르투갈 수입품으로 가격은 만2천원부터 만5천원까지. <전망좋은방>